

보도시점 2024. 6. 13.(목) 배포시점 배포 2024. 6. 13.(목)

방통위 부위원장, 웨이브아메리카스 대표 면담

- 방통위,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 밝혀
- 웨이브아메리카스는 OTT 플랫폼 ‘코코와’를 통해 미주지역 73개국에 서비스 중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, 이하 ‘방통위’)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13일(목)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(이하 ‘OTT’) 플랫폼 ‘코코와(KOCOWA)’를 통해 K-콘텐츠의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웨이브아메리카스* 박근희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.

*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웨이브의 자회사로 OTT 플랫폼 코코와(KOCOWA)를 통해 미국, 영국, 아일랜드, 스페인 등 총 73개국에 서비스 중

이상인 부위원장은 웨이브아메리카스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,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.

이상인 부위원장은 “OTT 서비스는 K-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”라며, “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소현 (02-2110-1280)
		담당자	사무관	구종모 (02-2110-1286)